

찬란한 유산 'AGAIN백제로'

익산시, 세계유산 축전... 충남문화재단 공동 주관 8월 13~29일까지 미륵사지·왕궁리유적에서 운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에서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유산 축전이 개최된다.



익산시의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제2회 세계유산 축전'은 찬란한 유산, AGAIN 백제로 주제로 다음달 13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올해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안동, 수원화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4곳이 개최지로 선정됐다. 전북도·충남도·익산시·공주시·부여군 등이 공동 주최하고, (재)익산문화관광재단·(재)백제세계유산센터

터·(재)충남문화재단이 공동주관으로 운영한다.

행사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소재로 한 전통 공연, 재현행사 등의 가치 향유 프로그램과 체험·교육·투어 등의 가치확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익산·공주·부여에서 공동으로 3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익산시에서는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에서 주제공연, 설치미술 및 포토존 연출, 야간경관, 체험프로그램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상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미륵사지를 찾는 관광객들은 올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파사드를 적극 활용해 세계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야간에도 체험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월드비전 업무협약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력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는 익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월드비전 슬기로운 자립생활(꿈드림 사업)'의 속성증 자격증 취득 과정 중 학원비, 재료비 등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995년 4월 설립돼 지역을 위해 긴급구호와 지역개발 옹호 사업 등을 진행하며 소외계층의 자활과 복지증진 등을

펼쳐왔다. 또한 위기청소년 조식지원과 생활비지원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윤철 본부장은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온전한 사회진출을 위해 꿈드림 카페 1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검정고시·자격증 취득지원·꿈드림 청소년단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3인 선발

군산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 상반기 군산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인을 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이번 심사는 각 공무원의 행정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시민제안, 과제, 중요도·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성·전문성, 확산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위원들의 평가로 치러졌으며, 최종적으로 3인의 우수공무원(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을 선발했다.

최우수상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최성운 계장의 '장마가 와도 이제 걱정없어요 -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우수상에는 행정안전과 송빛나 주무관의 '소외된 섬, 방축도가 전국적 명소가 되기까지'의 방축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장려상에는 수도과 이숙미 주무관의 '5년간 개발 담보상태였던 제2정수장, 공익성과 세수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의 제2정수장 매각 사업이 선정됐다. /군산=한경봉

익산 거리두기 개편 경로당 완전 개방

익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일부 경로당을 완전 개방한다.

시는 1일부터 적용되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지역 경로당 774곳을 운영시간 제한 없이 오전부터 완전 개방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 2차 접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존 방범대로 식사 행위는 금지되며, 경로당 방역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 발열 미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경고, 2차는 폐쇄 조치에 들어간다.

특히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주 1회 이상 수시로 방역수칙 점검해 식사 금지 위반 시에는 즉시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식사는 백신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시설인프라 통한 안전·쾌적 체육환경 조성

공공체육시설 신설·개·보수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 기대

군산시는 본격적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개·보수 사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달 내로 게이트볼장 1면과 부대시설을 갖춘 개정게이트볼장이 조성되고 지경게이트볼장은 내의장제 및 인조잔디 등을 교체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소용시민체육공원은 올 하반기까지 노후시설 정비 및 신규시설 조성을 통해

재탄생된다. 노후 풋살장과 축구장은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이전 설치되며 그라운드골프장과 농구장은 시민체육공원 부지 내 신규 설치돼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새단장될 예정이다.

월명주경기장은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경사로 설치, 노후화된 마감재 및 균열부 개·보수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장애인들에게 한 단계 높아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군산 지역에는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을 갖춘 서군산축구가 올

해 말까지 완료되고 오는 2023년에는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체육센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서군산지역 시민 체육활동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체육 활동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삶의 희망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고 더 나아가 전국 및 지역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개선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홍보 나서

정환을 익산시장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성과와 익산시민의 차별화된 아동친화 정책을 알리는 일일 홍보대사로 나섰다.

정 시장은 1일 화성사에서 개최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을 알렸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단체장 등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뜻을 모은 8개 자치단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익산시의 다양한 아동정책사업(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 아동참여기구 활동)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역의 차별화된 아동친화정책을 홍보했다.

익산시는 지난 2019년 아동이 행복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익산'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으며 매년 지방정부협의회와 협력하며 아동 친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도내에서 4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시' 인증을 받았다.

시는 이를 계기로 아동친화 6대 영역별 20개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맞춤형(아이사랑) 캠퍼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등을 새롭게 실시하고 아동의 안전과 교육환경 놀이와 여가 생활까지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사업을 전개한다.

정환을 시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 간 우수정책에 대해 교류하고 발전적 대안을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결국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기에 앞으로도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아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군산사회 김영일 부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군산사회 김영일 부의장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발굴·수여하는 상이다.

김영일 부의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의정대상(기초)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산=한경봉 기자



한편 김 부의장은 지난 29일 전북시군의장협의회로부터 남다른 봉사정신과 소명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